

## 이상 시 「선에 관한 각서」를 통해 본 디자인관 A Design View Through The Poems of Lee Sang [A Written Promise of The Line]

배영신, 오치규\*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Bae YoungSin, Oh Chigy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요약

시인이자 건축가였던 이상은 1920년대초 발표되었던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현대물리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실험시를 발표하였으며, 이 실험시를 통해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물질과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주된 텍스트인 「선에 관한 각서」를 중심으로 그의 세계관이 현대 디자인관과 어떠한 연관관계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상은 그의 문학을 통해 현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고 추구하게 된 절대적 가치와 理想에 대해 당시로서는 대단히 앞서간 원환론적 세계관과 우주와 나가 하나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추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Abstract

Lee Sang, a poet and a architect, made new experimental poems that was influenced by quantum mechanics and theory of relativity that were published in the early 1900's, and he showed his new view of the world that transcended time and space limit through his poems.

In this essay, I studied and analyzed on the links between his view of the world and modern design view with as the central figure his text, 'A Written Promise of The Line'

The result is that he fellow the cyclic world view which the world consisted of cycles within cycles, of immense duration and the scientific view of the world which the universe and me are one flesh.

## I. 서론

인간의 삶은 디자인에 의해 형상화되었다. 디자인이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역사와 흐름은 디자인이라 볼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창조한 디자인들로 만들어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던 물질주의의 팽배로 인해 인간은 삶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요구받게 되었다. 세계는 지금 물질보다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

지만 그러한 노력과 깨달음이 결국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와 더불어 근대 이후 과학에서도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온 우주는 하나라는 절대적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1900년대 초 시인이자 건축가이기도 했던 이상은 현대 물리학과 바우하우스의 교사였던 모홀리 나기 등의 영향을 받아 이미 이러한 21세기적세계관, 즉 삶에 대한 앞선 디자인관을 지니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시 「선에 관한 각서」를 통해 시대를 앞서간 그의 원환론적 세계관과 과학적 사고를 분석해보고 결국 미래를 향한 새로운 디자인관이란 자연, 즉 오래된 과거를 그리워하며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 II. 「선에 관한 각서」의 배경

### 2.1 문학사적 배경

이상(李箱; 1910~1937)의 본명은 김해경(金海卿)이다. 경성부 사직동에서 출생하였고 보성고보를 거쳐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했다. 1931년 최초로 시 「이상한 가역반응」을 『조선과 건축』 7월호에 발표하였으며, 1932년에는 동지에 「건축무한육각면체」를 발표하면서 이상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1934년 기교주의를 표방하던 친목회 「구인회」에 입회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후 정력적인 작품 활동을 하다 일본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1930년대는 파시즘의 팽배와 더불어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이 한층 가열화 되었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문학계의 뚜렷한 한 현상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모더니즘(modernism)'이다.<sup>1)</sup> 30년대 모더니즘은 1933년 '구인회'의 조직과 함께 이를 매개로 한 본격적인 운동기에 접어든다. <구인회>작가들은 대부분 문학적 핵심사항들이었던 기교편중에 대한 반성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지향점이었던 근대성의 물신숭배적 가치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근대의 열망에 대한 자책과 성찰은 근대 부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전통적 세계로의 회귀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이상이 구인회 활동을 하게 된 모토가 되었으며 그의 특징적인 시 「선에 관한 각서」에서 그러한 뚜렷한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2.2 현대 물리학적 배경

금세기 초 물리학에 대한 사고방식의 대변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17C에 걸쳐 주로 성립되어 수백년 서구의 전 학문 분야에 여파를 미쳤던 데카르트식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데카르트는 유명한 그의 '사유'를 통해 세상을 정신과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확연히 구분하며 이 두 영역은 속성상 서로 완전히 독립해 있는 별개의 세계에 속한다고 못박아두었다. 서로가 관계를 맺지 않고 개별

적으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실체인 원자나 전자와 같은 물질의 기본적 요소들이 그저 기계의 부품처럼 서로 포개지고 이어져서 구성되는 우주를 가상했었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이는 '전체성의 단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던 중 1920년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주 공간 전체에 연속적으로 퍼져있는 장(場)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켰고 이런 관점에서 전 우주는 이제 어디에도 끊어지는 곳 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운동을 하는 하나의 움살스러운 전체로 드러나게 된다.<sup>3)</sup> 더 나아가 모든 활동, 모든 움직임은 그 이하로 더 이상은 나누어지지 않는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의 차원에서 일어난다<sup>4)</sup>는 양자 이론이 등장해 서구 과학을 지배해 오던 기계론이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세상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각들로 나누어질 수 없으며 더욱이 물질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입자로나 파동으로든 상관없이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양자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이들 간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sup>5)</sup> 현대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을 통한 움살스러운 세계관은 하나의 부분은 전체와의 관련 안에서만 성립하며 '부분과 전체' 이들은 서로가 내부적인 속성을 함께 이루는 구성요소라는 사실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이후 사물에 관한 물리적 세계관의 이러한 연구는 이상의 「선에 관한 각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 III. 「선에 관한 각서」의 분석

### 3.1 세계관의 관점에서의 분석

오늘날 디자인의 최고 목표는 Idea, 즉 절대적인 세계의 추구이다. 더 이상 물질주의가 아닌 본질적인 삶의 질을 찾아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 시대의 디자인적 관점이며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땅에서 이미 근대를 초월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의 대표적 시 「선에 관한 각서」를 보면 이 시속에 시공간을 초월한

2) 임명섭 「근세와 근세의 철학」 2008, p9

3) 김재희 「신과학 산책-보움/온그림-우주의 숨결편」, 1994, p80

4) 김재희 「신과학 산책-보움/온그림-우주의 숨결편」, 1994, p86

5) 김재희 「신과학 산책-보움/온그림-우주의 숨결편」, 1994, p91

1) 이종대 「<九人會>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1998, p.14

새로운 세계관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생략]...

미래로달아나서과거를본다. 과거로달아나서미래를보는가. 미래로달아나는것은과거로달아나는것과동일한것도아니고미래로달아나는것이과거로달아나는것이다. 확대하는우주를우려하는자여, 과거에살으라, 광선보다도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사람든다시한번나를맞이한다. 사람은보다젊은나에게적어도 상봉한다. 사람은세번나를맞이한다....

속도를조절하는날사람은나를모은다. 무수한나는말(답)하지 아니한다. 무수한과거를경청하는현재를과거로하는것은불원한이다. 자꾸만반복되는과거, 무수한과거를경청하는무수한과거, 현재는오직과거만을인쇄하고과거는현재와일치하는것은그것들의복수의경우에있어서도구별될수없는것이다.

연상은처녀로하라. 과거를현재로알라. 사람은옛것을새것으로아는도다. 건망이여, 영원한망각은망각을모두구한다.

...사람은광선을드디어선행하고미래에있어서과거를대기한다....

...[중략]...

사람은한꺼번에한번을달아나라, 최대한달아나라, 사람은두번분만되기전에X X되기전에조상의조상의성운의성운의성운의태초를미래에있어서보는두려움으로하여사람은빠르게달아나는것을유보한다. 사람은달아난다, 빠르게달아나서영원에살고과거를애무하고과거로부터다시과거에산다, 동심이여, 동심이여, 충족될수없는영원의동심이여.

이 시에서 이상은 “미래로 달아나서 과거를 본다 과거로 달아나서 미래를 보는가” 라고 말한다. 즉 과거로부터 미래를 지향해 나가지만 결국엔 다시 과거의 정점으로 돌아간다는 원환적 세계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원환적인 시간의 흐름, 원의 어느 점을 찍어도 다 같은 의미가 성립된다. 끝과 시작이 맞물리며 과거가 현재,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과거, 과거가 미래가 되며 반복되어가지만 여기엔 늘 진화와 진보가 따른다. 따라서 인간이 바라는 이상사회의 원형은 과거에 이미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환적 세계관은 결국 오늘날 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절대적가치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땅에서 이상은 이미 21세기에 되어서야 겨우 깨달을 수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2 과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이상은 오늘날 일상이 되어 버린 가상공간과 인터랙티브한 세계를 상상했으며 1923년부터 1928년까지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모홀리 나기가 표명한 새로운 디자인론인 동역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sup>6)</sup> 그가 『조선과 건축』에 실은 일련의 권두언 속에는 모홀리 나기가 천명한 내용들이 마치 선언문처럼 인용되어 있다.

모홀리 나기-

정역학적 리듬만이 예술이 요소라고 하는 이집트 시대로부터 존재하는 수천 년 내의 오류에서 우리들은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시간감각의 근본 형식으로서 예술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활동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

생물적 구성은 생명의 현상 형태이고 모든 인간적 및 우주적 전개는 원칙이다. 1933.8.21.R

이처럼 이상의 실험시는 「조선과 건축」권두언에서 심화되어 점차 시의 형태로 변화해간 것으로, 새로운 디자인 이론의 흡수와 함께 1920년대 초 발표된 현대 물리학의 이론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sup>7)</sup>

이상은 그의 세계관을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시키기 위해 「선에 관한 각서」에서 광선이란 물리학적 언어를 채용했다.

...

확대하는우주를우려하는자여, 과거에살으라, 광선보다도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중략]...

...사람은광선을드디어선행하고미래에있어서과거를대기한다....

광선은 에너지이자 생명의 시원이기도 하다. 광선은 직선이 아니다. 직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6) 김민수 「필로디자인-가상공간에 펼친 날개-최초의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李箱」, 2007, p149

7) 김민수, 「필로디자인-가상공간에 펼친 날개-최초의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李箱」, 2007 p151

원형이다.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광선이란 과학적 언어의 이해를 통해 이상의 전일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생략]...

(고요하게나를전자의양자로하라)

...[중략]...

방사는붕괴인가, 사람은영겁인영겁을살수있는것은생명은생도아니고명도아니고광선이라는것이다.

이상은 시속에서 “고요하게 나를 전자의 양자로 하라” 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결정체적인 원자적 존재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양자적 존재” 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대물리학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에 근거해 빛에너지와 같은 존재를 상상했다. 그리고 물질적 존재와 절대적 의미가 붕괴되는 것을 ‘광선’ 이라고 보았다.<sup>8)</sup> 이와같이 이상의 실험시에는 절묘하게도 오늘날 21세기의 사고와 발상이 발견되고 있다.

#### IV. 「선에 관한 각서」를 통해 본 이상의 디자인관

21세기는 인간 삶의 목적을 절대론의 추구에 두고, 그에 관련된 근본적인 디자인 방법론이 대두된 사회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덕적 질문은 철저하게 배척하며 기계적 원리만 알아내면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고 믿는 그릇된 이분법적 사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을 향한 과도한 욕망이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을 황폐하게 해 오히려 삶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well-being을 내세우며 사회적 개선을 위해 good desig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연구 결과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자연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자연은 이미 완벽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의 예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소설속 노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모든 생명이 떠난 자리에 일생을 통해 다시 젖과 꿀이 흐르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복원시켰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노인은 각고의 노력으로 황폐해진 자연을 위대하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별써 과거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활발하다. 이상은 이미 그의 시「선에 관한 각서」에서 ‘과거를 현재로 알라, 사람은 옛것을 새것으로 아는도다’ ‘사람은 광선을 드디어 선행하고 미래에 있어서 과거를 대기한다’ 라고 말 한 바 있다. 시속에서 그는 과거, 즉 오래된 미래를 통해 절대적인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삶의 디자인관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속에서 보여주는 디자인관이란 결국 과거에서 미래를, 다시 미래에서 과거를 반복하며 진보하는 원환적 세계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또한 데카르트 이후 상대성 이론 및 양자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정신과 물질이 이분법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 서로 얽히고 설켜 상호의존의 관계속에 있으며 그것들은 결코 낱날로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전체’ 라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의 우주는 끊어지는 곳 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운동을 하는 하나의 움살스러운 전체<sup>9)</sup>라는 것,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소량의 단위인 양자의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양자 이론이 그것이다. 바로 이점이 “후각의 미각과 미각의 후각” 이란 시행이 표명하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이상은 그의 시를 통해서 원환적 세계관과 상대성 이론 및 양자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그의 현대적 디자인관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도 사회적 단절속에 짧은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천재 시인 이상이 그의 사유에 대한 성장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점은 아쉽지만 그의 삶에 대한 디자인관이 지닌 정당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 V. 결론

자유로운 시공간의 개념을 지닌 이상은 더 이상 문학의 세계뿐 아니라 1930년대 식민의 시공간에서 오히려 근대를 넘어서 미래를 디자인한 인물로 재조명되어야

8) 김민수, 「필로디자인-가상공간에 펼친 날개-최초의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李箱」, 2007 p155

9) 김재희 「신과학 산책-보움/은그림-우주의 숨결편」, 1994, p86

한다. 그는 시 「선에 관한 각서」를 통해 물질주의를 지양하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다시 과거를 추구하는 21세기의 원환적 세계관과 우주 만물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새로운 물리학적 관점을 통해 인간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디자인관을 제시해 주었다. 완성된 세계를 향해 더 이상 물질주의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현 사회에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디자인적 관점이며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따라서 이상이 치열하게 파고든 상상력과 예술의 세계를 통해, 21세기적 철학과 과학이 존재함에도 편협하게 삶을 바라보려 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진정한 행복과 가치 창조를 위해 힘써야 하겠다.

### ■ 참고 문헌 ■

- [1] 김민수, 『필로디자인-가상공간에 펼친 날래-최초의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 2007.
- [2] 김민수, 『멀티미디어 인간 이상은 이렇게 말했다』 1999.
- [3] 김재희, 『신과학 산책』 2006.
- [4] 임명섭, 「李箱시의 心象體系 分析 -무기물/유기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5]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이상'의 성격연구」, 2007 p1~3. 현대문학사 발표자료.
- [6] 안미영, 『이상과 그의 시대』, 2003.
- [7] 이중재, 「〈구인회〉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국학자료원1998.
- [8] 장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2005.